"종지종풍 드러내는 '문서포교' 주력"

조계종출판사 불서를 만드는 사람들

포교용 소책자 만들면서 정체성 찾아
교리·신행·수행입문서 꾸준한 인기 몰이

요즘 서점에서 <간화선>(조계종 불학연구소 · 전국선원수좌회 펴냄)이라는 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간화선'은 매순간 끊임없이 화두(話頭)를 참구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불교의 대표적 수행방법이다. 우리나라 대표종단인 조계종의 수행법이기도 하다. 사실, '간화선'은 철저히 체험적이기에 말로써 풀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출판물 간행은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 말로써 선(禪)을 한계 지으려 해서야 안 되겠지만 간화선이 무엇인지 중생은 언어를 벗어나서 알 도리가 없다.

이렇게 봤을 때 '간화선'을 '말'로써 알릴 수 있는 곳은 결국 조계종 산하 기구여야 한다는 것이 자명해진다. 그것도 책이라면, 역시 조계종출판사가 펴내야 한다는 당위성이 생긴다. 조계종출판사는 바로 이런 종단의 종지종풍을 불자들에게,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는 단행본과 스님 및 포교사들을 위한 설법포교자료집 <법회와 설법> 등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조계종출판사는 1995년 3월 종단 내 사업부가 개설되면서 '종단 재정 안정화'를 목적으로 창설됐다. 즉, 초기 출판사 설립목적은 종단 산하 사찰의 인쇄 · 출판물 외주제작으로 수익을 내겠다는 계산이었다. 사업부는 1997년 폐지됐고 출판사는 재무부로 이관됐다. 그러다 2000년에는 다시 '문서포교'라는 종단 목적사업 수행 기구로 재편, 포교원으로 이관됐다. 조계종출판사가 정체성을 갖기 시작한 것은 포교원 이관 후로 <마음청정 국토청정>, 군병영생활만화 <불교야 놀자>, <지혜롭고 행복한 나> 등의 포교용 소책자를 제작 · 배포하면서였다.

현재 조계종출판사에서 하는 일은 크게는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수익사업이란 달력제작과 소위 '팔리는 책'을 간행해 수익을 내고 예치금을 남겨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종단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업, 즉 목적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 월간으로 간행되는 <법회와 설법>의 경우 월간지 형태로 펴내고 있지만 앞으로는 소책자 형태로도 나올 예정이다. <법회와 설법> 간행은 스님과 포교사들에게 중요한 포교자료기 때문에 수익은 나지 않더라도 꾸준히 시행하고 있는 조계종출판사의 목적사업인 셈이다.

조계종출판사 입장에서는 수익과 목적 모두 들어맞으면 가장 좋을 것이다. 조계종출판사의 스테디셀러인 <불교입문>이 아마 이에 해당되는 예일 것. 초심자라면 무조건 읽어야 하는 필독서 중 하나인 이 책은 현재 인터넷 서점에서도 꾸준히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 기본기에 충실한 수행시리즈 <간화선입문> <절수행입문> <염불수행입문>에 이어 '주력'과 '간경' 수행입문서도 곧 출판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파격적인 책들도 만나볼 수 있다. 현재 준비 중인 <(가칭)불교와 영화>도 그런 책 중 하나다.

최승천 편집부장은 "아직도 어떤 분들은 우리가 달력제작만 하는 줄 알고 있어 놀라울 때가 있다"며 "경쟁력 있는 출판물을 만들어내고 사업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설명한다.

확실히 조계종출판사가 펴낸 책들이 요 몇 년 달라졌다. 이는 특히 '아름다운 인연'이라는 조계종출판사의 또 다른 브랜드로 설명할 수 있다. '아름다운 인연'은 비교적 말랑한 내용의 책을 펴내는 브랜드 네임이다. '아름다운 인연' 브랜드를 달고 나온 책으로는 <행복한 빈손>(일면 스님), <스트레스는 나의 스승이다>(김정호) 등이 있다.

요즘 최승천 부장은 "출판 기획을 하다 보니 인터넷 매체 등을 매일 체크하며 필자 발굴을 하게 된다"며 "이렇게 노력해도 출판물 하나를 펴내기 위해서는 몇 년 동안 고생할 각오를 해야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고생스러운 작업을 통해 출간된 '자식' 같은 책이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할 때, 출판사 식구들의 고통은 배가되기 마련이다. 비교적 안정적인 종단출판사에도 그런 일이 있을까. 최승천 부장과 이상근 편집팀장은 <나는 붓을 던져도 그림이 된다>(박영택)를 이 경우로 꼽는다. 기획도 좋았고 책도 잘 만들었다는 평을 받았는데 대중의 사랑은 못 받은 것이다.

조계종출판사는 앞으로 몇 가지 중요한 기획을 내놓으려 하고 있다. 하나는 어린이날 이전에 <만화 백유경>을 펴내는 것이다. 이 팀장이 "진짜 어린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삽화와 내용으로 동화책처럼 만들어 낼 것"이라 강조하는 이 책은 그야말로 조계종출판사에서 앞으로 펴낼 책 중 가장 기대되는 도서다.

또 다른 하나는 <간화선> 등을 비롯한 불서의 영역(英譯)이다. 불서의 대중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불서의 외연을 확대하고 종지종풍을 세계적으로 펼쳐내는 것도 조계종출판사의 중요임무기 때문이다.

'종단' 출판사라는 것을 한계삼지 않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려 노력하는 조계종출판사. 결코 내부기관에 머무르지 않으려는 구성원들의 노력이 있기에 이들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앞으로 조계종출판사가 어떤 '파격'을 보여줄지 기대된다.

글 · 사진=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조계종출판사 불서 BEST 20

순위	책 이 름	저 자	출판년도
1	조계종 신도교재(입문, 교리, 역사, 문화, 포교)		2000
2	무비스님의 경전시리즈	무비 스님	2005
3	간화선(개정판)	불학연구소 · 전국선원수좌회	2008
4	간화선 입문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	2006
5	절수행 입문	조계종 불학연구소	2006
6	염불수행 입문	조계종 불학연구소	2007
7	상묵스님 금강경 강의	상묵 스님	2007
8	학담스님의 아함경 강의	학담 스님	2008
9	스트레스는 나의 스승이다	김정호	2005
10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도 같은 앉다	지현 스님	2007
11	행복한 빈손	일면 스님	2007
12	사찰에는 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목경찬	2008
13	통일법요집	조계종 포교원	2006
14	한글통일법요집	조계종 포교원	2006
15	엄마 아빠 고마워요	양태석	2007
16	얘들아 절에 가자	홍주현	2007
17	어린이 법요집	조계종 포교원	2008
18	청소년 법요집(개정판)	조계종 포교원	2008
19	야호 법회가는 날이다	조계종 포교원	2008
20	법회와 설법(월간)	조계종출판사	매월

내 인생의 불서 한 권

평화롭게 살다 평화롭게 떠나는 기쁨이다
달라이라마 | 넥서스 | 2003

김석구 KT 고객전송 팀장

"고통의 원인 알아야 기쁨 얻을수 있어"

중생의 행복을 위하는 자비심 키워라
인내심 기르는 것이 '보리심' 키우는 법

외신을 통해 들려오는 라싸의 소식에 세계인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사막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부처를 향한 구도의 열기를 인내로 이어가며 평화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끝없이 펼치며 살아가고 있는 티베트인들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고통과 기쁨을 경계 짓지 않고 평화로운 삶과 평화로운 죽음이 둘이 아니라며 삶이 두려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소상히 안내하는 <평화롭게 살다 평화롭게 떠나는 기쁨>이라는 책과의 만남을 추억한다. 이 책은 2003년 말, '구조조정'이란 피할 수 없는 변화의 바람 속에서 함께했던 동료들이 직장을 떠나게 되자 남은 사람으로서의 고통으로 냉혹한 삶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던 시기에 만났다. 어느 날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고통'과 '행복'의 의미가 '삶'과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것도 바로 이 책이다.

이 책에서는 먼저 행복을 얻으려면 그 원인을 알아내 키우고, 고통의 원인을 알아내 없애야 한다고 말한다. 아울러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알면 자연스럽게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고통을 불러오는 원인은 '무지(無知)'다. 무지는 자아에 대한 오해이며, 우리가 겪는 고통은 착각과 오해 때문에 생겨난다. 그래서 잘못된 견해를 바로 잡아 중생의 행복을 위하는 자비심을 키우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리심'을 강조한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 각별히 노력하지 않으면서 편안한 방법으로 수행하려 한다면 그 수행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하기란 정말로 어렵다는 것이다. 내일이 먼저 올지 내생이 먼저 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처음 20년은 젊으니까 수행을 않고 다음 20년에나 수행할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너무 늙어 수행할 수 없다고 한탄하면서 인생을 낭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한 일은 몸은 빨리 병들고 늙어 야위어만 가는데 번뇌는 활기차게 남아 나이를 먹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다음 생'이라는 미지의 세상으로 가야 할 때는 이 세상에서 겪었던 일상적인 경험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기에 도와줄 안내자는 오직 자신이 했던 실제 수행뿐이라고 강조하며, "환자가 의학 서적만 읽고 그치듯이 하지 말고 마음을 다스리는 실제 수행을 직접 시작하라"고 가르친다.

'보리심'을 키우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인내심을 기르는 수행이다. 이 책의 저자 달라이라마는 두고 온 땅과 동포들을 향해 "참을 수 없는 억압이 삼보를 모독하고 사원을 파괴해도 화를 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한다. "적에게 적의를 느끼고 불행해 하지 말고 인내수행을 가르치는 소중한 스승이라 여기라"는 말에는 숙연함이 가득하다.

나라를 잃은 고통과 억압이 나날이 높아가도 티베트인들에 가슴은 부처님의 말씀으로 더욱 넓어지고 있다. 이 책을 읽노라면 살아가면서 환경을 탓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힘이 난다.

라싸가 불타 없어져도 황량하게 찢겨나간 티베트의 산야사이를 울며울며, 붓다를 향한 열망으로 치열한 구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니 너무나 아프다. 아무리 아파도 똑같이 아플 수 없다는 말이 가슴을 파고든다.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중생교육을 위한 맞춤 교육
카이로프락틱 · 전생 · 빙의 치유법
지도자 모집

교과목
• 카이로프락틱 – 경추, 흉추, 요추, 골반, 선추 이론및 실기
• 골격학, 근육학, 운동처방학
• 최면술, 전생 · 미래체험, 빙의 퇴치법, 집중력 강화, 정신질환, 불면증 해소

기 간
• 2급과정 (2개월) • 1급과정 (1개월)
미국 팔머대학 교재직강, 2년 전문대 교육 과정을 108 시간 집약완성
• 최면 이론실기 8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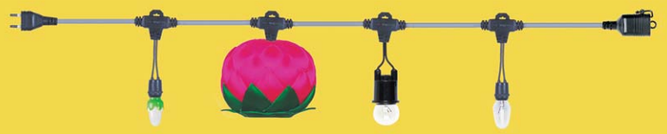
장 소
• 지하철 1호선 구일역에서 도보로 5분, SK주유소 뒤, 기숙사 이용 무료

입학일시
• 2008년 5월 1일

세계불교 해동화엄종 부설 교육연수원
서울 · 구로구 구로1동 658-201 천인빌딩 5F
본원 교학과 Tel : 02-853-6010~1

원장 우혜안 스님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신개발품
SMD,LED전구 (국산정품)

장엄용(법당) 전기초
▶화재 위험이 거의 없다.
▶그을음과 납성분의 위험이 있는 일반초와는 달리 무공해임
▶시간 조절 가능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국산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반도체로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종류: 3W, 5W, 10W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등, 영가위패

연 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관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